

코메니우스 교육학의 세계관적 기반에 대한 연구

안영혁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서론

세계관의 논쟁이 더러는 누가 더 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겨루는 전투장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이 또한 학문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의 할 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원래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인격을 요구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고, 인간과 언약을 하고, 그 언약에 대한 책임적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인격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런 관계는 전혀 불가능하다. 개혁주의 신학의 출발자 칼빈의 신학은 언약신학적인 특성을 극명히 드러내고 있는데, 언약신학은 인간의 인격을 전제로 한다.¹⁾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으신 세계를 배경으로 인간을 지으셨다. 따라서 세계는 인간 인격의 배경이며, 우리는 세계관 연구에서도 충실히 인격적 관점을 따라야 한다.²⁾ 인격은 그 기본이 타자를 대하는 총체성으로서의 자아이다.³⁾ 또한 이 타자의 총체는 세계이고, 그래서 세계는 우리의 인격이 발을 디디고 서 있는 배경이다. 만약 인격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 채로 세계 이야기만 한다면 배경만 남은 그림이 되고 말 것이다. 세계 이야기에는 원래 인격의 관점이 전제처럼 있다는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세계관 논의는 인격이 충실히 이야기됨으로써만 옳은 것이 될 것이다.⁴⁾

인문학이란 원래 그런 작업을 하고자 한 것이 분명하다. 인문학이 인간의 총체성에 대하여 말하기를 유보해 두고 스스로 과학이 되기를 위한 역사가 이미 오래지만, 그래 가지고는 인간의 의미를 찾는 해석학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명백하게 제기되어 있다.⁵⁾ 그래서 우리는 인간과 함께 세계를 논함에 있어서 이 인격적 지향을 떠날 수 없다.

성경과 신학이 창조의 자리를 넘어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많은 학자들이 인격이란 논의 자체가 성경 혹은 신학에서 출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⁶⁾ 그것은 또한 세계 진술과 연관되어 있다. 인문학의 인격 개념이 성경과

1) Willem A. VanGemenen, *The Progress of Redemption*, 안병호, 김의원, 구원계시의 발전사 (서울: 성경읽기사, 1993), 21.

2) *ibid.*, 45-117. 언약신학의 전통에 서 있는 구약신학자 벤게메렌은 이 책에서 언약 신학적 서론 후에 바로 창세기 해석을 하면서, 세계의 시작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논하고 있다. 여기서 질서와 혼돈을 함께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행동과 연관된다.

3) 진교훈외, *인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v-vi.

4) *ibid.*, 269-271, 김연숙, *레비나스의 인격론*, .

5) 강영안, *인격적 지식과 보살핌*,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 2006.6, 117; 126-127. 그는 여기서 Michael Polanyi의 인격적 지식을 들어 객관적 지식의 추구를 비판하였다. 인격적 지식은 휴머니즘을 지향하는데, 그것은 인간에게는 환원할 수 없는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인격적인 것이다.

6) 허준, *바르트의 인격론*, 인격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7), 341.

신학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관점마저 있는 마당에, 성경이 이런 개념을 다루는가 하는 물음은 정말 물으나 마나한 것이다. 당연히 그렇다. 칸트가 학문을 논하되 신학은 물려 두고 논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하여튼 시대가 진전되면서 성경과 신학이 가진 인격 개념은 인문학 일반에서 매우 희박하여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⁸⁾ 그러나 성경은 단지 한 권의 책으로 본다 하더라도, 인격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고전임에 틀림없다. 돌이켜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을 인문학적으로 이해하자면 그것은 인격 그 자체이다. 하늘을 닮으려 하는 인간의 인격이다.⁹⁾

이런 바탕을 가지고 볼 때 코메니우스는 기독교 세계관 탐구의 탁월한 학자로 떠올라 온다.¹⁰⁾ 그는 특히 교육학자로서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데, 교육학이란 원래가 학생의 인격 성장이 그 목표이다.¹¹⁾ 그러므로 교육학적 세계관은 필자가 목표하는 바, 인격적 세계관의 지향을 가지게 되어 있다. 꼭 코메니우스가 아니더라도 그렇다. 또한 하나님 형상 개념에서 보았던 대로 기독교는 그 자체가 인격 교육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데, 코메니우스는 인격과 교육 그리고 기독교 3자를 세계관과 잘 연결하여 보여준다. 그는 성경과 신학의 인격적 특성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며, 바로 그런 관점으로 인하여 그의 학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육학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교육학은 인격적 기반 위에서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인격 성장을 목표로 하는 코메니우스 세계관의 절대적 장점은 전투적이기보다는 평화적이라는 데 있다.¹²⁾ 인격 성장은 편파적인 주장에의 몰입이 아니라 인격의 모든 요소를 고려한 환경을 요청한다. 그러자면 세계의 평화가 요구된다. 코메니우스는 그런 면에서 인격이 요구하는 모든 요소들에 두루 응답하고 어느 일부를 폐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세계관은 평화적이다.¹³⁾ 현대에 이르러 코메니우스 연구자들이 평화교육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오는 것도 이러한 사실과 궤가 닿는다.¹⁴⁾

이경재,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격개념, 인격, 82ff.

- 7) Manfred Geier, *Kants Welt*, 김광명, 칸트평전 (서울: 미다스북스, 2004), 244-248.
Sterling P. Lamprecht, *Our Philosophical Traditions*, 김태길, 윤명로, 최명관, 서양철학사 (서울: 을유문화사, 1963), 531.
- 8) 물론 이것은 칸트가 인격 개념 자체를 허물기 시작했다는 말과 동치는 아니다.
- 9) VanGemerer, op. cit., 73-74. 여기서 벤케메렌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형상을 책임성, 능력, 개인, 계약, 하나님의 언약적 위탁 등의 말로 해석한다.
- 10) 그의 『범교육학』의 슬로건인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철저히’에서 모든 것은 곧 세계이다.
- 11) Johann Friedrich Herbart, *Allgemeine Pädagogik*, 김영래, 일반교육학, (서울: 학지사, 2006) 61-62. 여기서 헤르바르트는 교육의 목적을 도덕성으로 제시하는 바, 이는 인격의 성장을 요청한다.
- 12) Klaus Großmann, Henning Schröer, *Auf den Spuren des Comenius*, 정일웅, 코메니우스의 발자취 (서울: 여수론, 1997), 189-194.
- 13) Jan Marius van der Linde, *Die Welt hat Zukunft*, 정일웅, 미래를 가진 하나님의 세계 (서울: 여수론, 1999) 109-124. 코메니우스는 이 책에서 이런 비전을 실현시킬 세계적 기구에 대한 구상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선지자, 제사장, 왕)에 일치하여 ‘빛의 모임’(das Collegium Lucis), ‘종교 회의소’(das Consistorium Sanctitatis), ‘평화재판소’(das Discaterium Pacis)로 제안하였다. 이 기관들은 언뜻 보기에 유네스코, 세계교회협의회, 유엔 혹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종합을 연상케 한다.
- 14) 예를 들어 작고한 이숙중 교수는 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숙중, 평화를 위한 코메니우스의 사상과 교육사상과의 관계성, 기독교교육정보6 (서울: 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03.4); 최진경, 코메니우스 연구동향과 그의 사상의 한국에서의 적용, 신학지남 72(3), (서울: 신학지남사, 2005.9), 340. 최진경은 이 논문에서 이런 일반적 동향을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여기서 코메니우스가 가진 세계관적 접근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하게 코메니우스의 신학적 철학적 기초를 밝히는 일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는 그 기초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학에 나아갔으며, 그 교육이라는 프리즘을 가지고 인간과 세계를 어떻게 해명하여 나갔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코메니우스의 교육학적 세계관은 가히 새로운 기독교 철학의 시도라 할 만큼 포괄적이고도 기독교적인 입장이 아주 선명하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교육학적 관점으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교육학은 학문을 쌓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연구이다.¹⁵⁾ 코메니우스가 세계관과 관련하여 자신의 교육적 실행을 보여준 것 중에 탁월한 작업 중 하나가 그의 『세계도해』 저술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 그림책이다. 그는 여기에서 성경의 관점을 잘 고려하여 당시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적절히 해명해 내었다.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만한 기독교 세계관 책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림책이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가 생각하는 세계의 구도를 잘 보여준다. 필자는 그 코메니우스의 세계도해를 분류함으로써 그가 실제로 교육을 어떻게 실행하려 하였는지 보이고자 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코메니우스식의 어린이 세계관 교육이다.

필자는 일찍부터 세계도해를 분석해보고 싶었지만, 거기에 적절한 분석의 도구를 얻지 못하여서 그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라 생각한다.¹⁶⁾ 이 논문을 전개하면서 나름대로는 적절한 분석의 도구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코메니우스의 『범교육학』에 나오는 내용이다. 코메니우스는 『범교육학』 제3장에 ‘모든 것’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¹⁷⁾ 그것은 세계를 인간학적으로 해명하는 매우 탁월한 작업이었는데, 그는 여기에서 세계를 12항으로 분류한다. 필자는 일단은 그 12항을 그 의미와 함께 제시하고, 그 12항을 분류의 주제적 지침으로 삼아 세계도해의 그림을 분류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작업은 좀 더 큰 작업인데, 이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본다. 그것은 이렇게 분류된 세계관의 정점에서 말단에까지 이르는 각 항목들로 어린이들의 교육과정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의 논문을 쓰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뜻 있는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회의와 노력을 요청한다. 또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교단이나 교육과정 출판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복잡한 재정지원과 학문 및 정신의 확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와 서는데, 이 논문에서 그런 것을 다루지 못하는 것은 다소 아쉽다.

좀 긴 서론이었다. 그것은 기독교교육이 인격적 특성을 가진 세계관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정황과, 그것을 모델적으로 보여준 코메니우스 교육학의 연결 문제였다. 이제 제시된 방향성을 가지고 다음의 순서를 따라 코메니우스 교육학의 세계관적 기초에 대하여 기술할

15) Jan Amos Comenius, Pampaedia, trans. Kraus Shaller, 정일웅, 범교육학 (서울: 그리스, 2005 수정2판), 서론.1-3.(이하에서는 범교육학이라는 책명과 장 및 항의 번호만 기록함)

16) Jan Amos Comenius, Orbis Sensualium Pictus.

17) 범교육학, 51-89.(필요상 페이지를 기록함)

것이다.

- I. 인격의 개념과 신학 및 코메니우스의 관점
- II. 코메니우스 교육학의 인격적 지향
- III. 코메니우스 교육학의 세계관적 지향
- IV. 범교육학의 모든 것에 관련된 코메니우스의 인간학
- V. 코메니우스 세계도해의 분석

I. 인격의 개념과 신학 및 코메니우스의 관점

서론에서 이미 인문학, 그리고 코메니우스의 교육학이 가지는 인격에의 추구는 이야기하였다. 여기서 아주 상식적으로 사용하는 지정이라는 인격의 요소들을 무난히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인격의 보다 구체적인 사실에 나가려고 한다. 여기서 정말로 상식을 동원하는 것이 좋겠다. 인격을 이루는 요소는 지·정·의 3자이다. 이것은 인간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인 만큼 어느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흘러오는 가운데 형성된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인식 기능을 감각과 이성과 신앙 3자로 규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식 기능에 관한 이론은 얼마나 많은가? 칸트만 하더라도 여기 딱 맞아들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 일반이 공유할 인식 이론으로 이것은 매우 적절하다. 필자가 말하려고 하는 코메니우스는 실로 이 3가지를 인식 기능으로 명기하고 있다.¹⁸⁾ 철학과 신학의 오랜 조우 끝에 서서히 굳어진 상식이다.

인격의 요소를 지·정·의 3자로 보는 진술에 아주 가깝고 발전적인 관점까지 보인 사람으로 막스 셸러를 들 수 있다. 그는 인격이 지·정·의와 함께 신체를 포함한다고 보았다.¹⁹⁾ 인격을 말하면서 굳이 신체를 말하게 된 것은 현상학 이후 분명한 현상의 모색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현상은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며, 따라서 신체는 인격을 드러내는 인간의 드러난 현상으로서 그 자체가 본질이기도 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신체는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통로이기도 하고, 받아들인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도 하고, 또한 바깥으로 자신의 것을 내보내는 통로이기도 하다. 필자가 재해석하는 바로는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성의 인식을 중심으로 일어나며, 받아들인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감정 작용이며, 지성과 감정의 운동이 마침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은 의지를 중심한 작용이다. 바로 이런 작용들의 일련의 연속으로 인격은 인격으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인격은 외부 세계와 구별되는 자기 동일성적 실체로서 외부와 관계를 갖는데, 외부와의 관계는 받아들이고 담고 내보내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인격의 요소들이 하는 작용들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 인물인 미셸 푸코가 자유에 대하여 절규하면서 새로운 사고와 행위와 존재방식을 구하는 것도²⁰⁾ 느슨하게는 함께 통하는 일로 보인다. 존재방식을 인격으로 해석해 보면 푸코가 말하는 사고와 행위와 자유의 절규는 각각 지와 의와 정으로 함께 해석된다. 그러니까 인격을 일반적으로 지정의로 보는 것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와서도

18) 범교육학, 3.18.

19) 금교영, 근대 이후 독일의 인격 개념, 인격, p.141.

20) Michel Foucault 외, 정일준 편역, 자유를 향한 참을 수 없는 열망 (서울: 새물결, 1999). 이 책은 푸코와 함께 포스트모더니즘의 모더니즘 옹호 이론가인 위르겐 하버마스까지 자유라는 주제를 따라 진술하고 있다.

문성훈, 미셸 푸코의 비판적 존재론 (서울: 도서출판 길, 2010), 20-21.

여전히 아주 쓸 만한 도구임에 분명하다. 애초에 푸코 같은 사람이 인격이라는 개념을 아무 일 없는 듯이 근대학자들처럼 다룰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주변의 개념들로 근사한 사고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필자는 이와 같은 진술이 제각각의 해석학이라 믿는다. 즉 오랜 세월 인간 사이에 회자된 인격의 요소로서의 지·정·의 개념을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해석으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이 해석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 한 줄기 빛이 됨으로써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소위 현상학적 해석학자로 불리는 하이데거는 막스 셸러와 크게 차이가 없는 규정을 한 바가 있다.²¹⁾ 하이데거는 해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용의 의미와 관련 의미와 이행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의미 3자는 지·정·의 3자와 같은 해석적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지성적이며, 관련은 감정적이며, 이행은 의지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어떤 다른 권위적 규정보다도 인격에 대한 이런 현대적 해석학들의 기반을 가지고 인격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인격은 외부 세계와 구별되는 자기 동일성적 총체이자, 외부 세계와 통하는 통로이며, 따라서 한 인간을 이해하게 하는 해석의 본마당이다.

한편 서구를 중심으로 한 현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격의 개념이 기독교 신학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기독교적 특성을 배타적으로 표방하지 않는 인문학 서적인 『인격』에서 이경재, 금교영 등은 이 개념이 기독교에서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경재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제대로 다루려고 하다 보니 인격의 개념이 필요하였다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들어 인격 개념의 시작을 말한다.²²⁾ 고대의 가장 치열했던 교리 논쟁은 삼위일체론 논쟁과 기독교 논쟁이다.²³⁾ 원래는 대체로 동의어로 통하였던 ‘위’와 ‘체’를 서로 다른 형이상학적 용어로 규정하는 가운데, 동일본질설로 결론을 내린 것이 삼위일체론 논쟁의 전모다. 이 때의 ‘위’는 영어로는 person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간에게는 인격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련하여 우리말로는 ‘위격’이라 번역할 수 있다. 말하자면 삼위일체론 논쟁과 기독교 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격에 대하여 연구하게 되었고, 그때 사용한 위격을 인간에게도 적용하여 인격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금교영은 인격 문제가 구원과 약속의 문제에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약속을 하고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은 인격의 독자적 책임을 요청한다고 보는 것이다.²⁴⁾ 금교영의 이런 진술은 하나님의 위격과 인간의 인격이 소통하는 일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상식과 신학을 지나 철학 일반으로 나아가기로 한다면 인격과 관련하여 데카르트를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그는 단지 한 철학자가 아니라 중세와는 다른 자각을 출발시킨 근대적 철학의 출발자로서 근대를 대표하는 자신의 자리를 보유하고 있다.²⁵⁾ 인격이라는 구체적 용어를 떠나서 말하자면, 데카르트의 코기토(생각하는 자아)야 말로 인격의 기본을 말하는 데 손색이 없는 개념이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회의하여 그 어떤 존재도 상정할

21) 한국현상학회편,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서광사, 1992) p.255.

22) 이경재,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격 개념, 인격, 82ff.

23) 이 두 논쟁에 대하여는 다음의 책이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 (서울: 기독교서회, 1970), 157-250.

24) 금교영, 근대 이후 독일의 인격 개념, 인격, 132ff.

25) 최명관, 데카르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형설출판사, 1980), 9.

수 없을 때에조차 생각하고 있는 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²⁶⁾ 회의하는 인식을 방법적 기초로 하여 존재를 읽어낸 것이며, 그 존재는 스스로 실재이면서 모든 다른 존재들에 대하여 실재성을 확보해준다.²⁷⁾ 그리하여 코기토는 존재와 인식을 함께 보유한 인격으로 드러난다. 인격을 인식과 함께 규정하는 것은 자칫 인격을 협소한 개념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결국에는 인식적 자아를 넘어 존재론적 자아에로 나아가며, 세계와의 연관성으로도 나아가기 때문에²⁸⁾ 세계관적 배경을 가진 인격을 대용할 개념으로 보아도 좋겠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떠 올리고 보면 결국 인격 개념이 근대적 자각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추리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인격』은 인격 개념의 근원으로 아퀴나스를 거론하고, 그 개념의 구체적 발전을 칸트에서 출발시켜 철학적 인간학을 했던 막스 셸러 등에 도달하며 인격의 개념을 전개해 간다.²⁹⁾ 필자는 이와 같은 인격 개념 운동의 시초적 양상이 코메니우스에게 나타난다고 본다. 그는 1592년에 태어나 1670년에 서거한 인물이다. 필자가 판단하건대는 코메니우스는 후스파 및 개혁교회 신학을 계승하는 한편,³⁰⁾ 프란시스 베이컨의 귀납법을 교육학적으로 발전시킨 인물이다.³¹⁾

돌아보아야 할 문제가 있기는 하다. 코메니우스는 이성 혹은 지성을 인간 내면의 빛으로 보고 거기에서 얻는 내용들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세상에 나가야 할 것을 교육학적으로 제시하지만, 거기 비하면 감정에 대하여는 그 접근이 다소 부정적이다. 코메니우스는 그의 『범교육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대리자들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들 자신에 얽매이는 경향이 항상 있고, 지성보다는 감성(sense)을 더 신뢰하며, 사물의 유혹에 기만당하고, 자유롭고 풍부한 감성의 능력보다는 얽매여 있는 감정을 더 따르는 경향이 있다 (범교육학 4.10)³²⁾

정신과 의지와 행동의 능력은 분명히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이다. 이러한 세 부분으로 된 인간의 본성은 진리, 선, 그리고 하나됨에 의하여 길러진다(범교육학 4.16)³³⁾

4.16에서 정신은 지성을 말하는 것으로 코메니우스는 인간의 본성을 지,의,행으로 보고

26) *ibid.*, 104. 까뮈가 코기토는 그 자체가 하나의 반항이라고 하였는데(Camus, *Remarques sur la révolte*, 1949, 13) 놀라운 통찰이다. 이것은 교육학적 인격과는 의미가 다르지만, 모종의 책임적 자아를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의미상 인격과 통한다.

27) *ibid.*, 109-110.

28) *ibid.*, 185-209. 데카르트의 세계는 많은 논란을 낳기는 했지만, 코기토가 세계 해석까지 나아갔다는 사실 자체는 누구에게도 명백하다.

29) *인격*, 77-112.

30) 최진경, *기독교교육학의 아버지 코메니우스* (용인: 킹덤북스, 2012), 38-59.

31) Jan Amos Comenius, *Didactica Magna*, trans. Andreas Flitner, 정일웅, *대교수학* (서울: 창지사, 2002) 165-184. 이 부분은 대교수학 제 16장인데, 코메니우스는 그 유명한 자연주의 교수법을 여기서 진술한다. 그런데 그 자연주의 교수법은 뜯어보면 베이컨의 귀납법을 교수학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코메니우스가 베이컨을 계승한 가장 뚜렷한 흔적은 바로 이 부분이다.

32) *범교육학*, 4.10.

33) *범교육학*, 4.16.

있다. 감정은 빠져 있다. 또 한편 4.10에서는 감정을 엮매어 있는 것이라 규정하였다. 감정의 존재를 인정은 하고 있지만, 사람을 엮매이게 하는 그 무엇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세적 인격 규정의 흐름에 가서 닿는다. 지성과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고³⁴⁾, 그로 인한 열매로서의 행함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감정은 이러한 여러 인간의 활동들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요인으로 보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다. 이것은 단지 코메니우스의 감정 몰이해는 아니라고 본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감정을 부정적 가치에서 독립하여 본 것은 프로이트에게서 출발한다. 프로이트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감정의 제 현상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밝혀내는 일에 성공하였다.³⁵⁾ 그 전에는 감정에 대한 시선은 대체로 곱지 않았다. 막스 셸러가 철학적 인간학의 관점에서 인격을 신체와 함께 지정의로 본 것은 프로이트 같은 학자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보다 분명하게 이루어진 일로 보인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미 기본적인 제시는 있다 할지라도 별다른 편견 없이 인간이 자신의 인격을 지·정·의의 결합으로 본 것은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다고 하겠다. 요컨대 코메니우스는 지의행을 중시하였고 상대적으로 감정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었으나 전체적으로 이런 규정들을 통하여 인격의 개념에 도달하고 있다.

물론 코메니우스가 감정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니다. 교육에서 교사가 차지하는 의미를 다룬 범교육학의 교사론을 출발시키면서 그는 교사가 감정을 세련되게 가져야 할 것을 내비치고 있다.

범교육에 관한 서적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제작되었다면, 모든 관심을 다음과 같은 사실에 쏟아야만 한다. 즉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책만을 터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화술과 그들의 손이 실제로 세련되도록 하며...³⁶⁾

여기서 정신(mind)은 지성을 의미하고, 마음은 감정(heart)을 의미한다. 이것은 4장의 구절들과 비교하여 말하자면 부정적인 의미의 감정이 가라앉은 감정을 말할 것이다. 화술과 손은 의지와 행동으로 대략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코메니우스는 감정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이해와 좋은 감정의 중요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시대적인 것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코메니우스는 지정의 모두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코메니우스는 그다지 또렷하게 길지는 않은 지·정·의의 역사에 대하여 선구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그것을 교육학적으로 진술하면서 자신만의 교육학적 인간관 및 세계관으로 진전시켰다. 이제는 그와 같은 코메니우스 인간관 및 세계관의 인격적 지향에 눈을 모아볼 것이다.

34) 중세는 그야말로 이성의 시대였으며, 둔스 스코투스 등이 주의주의(主意主義)를 표방하였던 것이 중세말의 상황이다. 여기에도 이성과 의지는 중요하지만, 여전히 감정에 대해서는 중요한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35) 한편 유아교육적인 의미에서 프로이트가 감정에 대해 접근한 것은 매우 놀랍다. 그는 유아기의 감정에 접근하면서 프로이트와 같은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그야말로 행복의 관점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러고도 감정의 존재 자체는 프로이트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보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6) 범교육학, 7.1.

II. 코메니우스 교육학의 인격적 지향

코메니우스는 자신의 세계관을 전면적으로 펼치기 위하여 ‘인간사 개선을 위한 총체적 제언’(De rerum humanarum emendatione consultatio catholica) 전7권을 썼다.³⁷⁾ 이 7권은 하나의 완결적 체계를 지향하는 것이 분명하다.³⁸⁾ 필자는 그 중 제3권과 제4권의 연계성에 주목한다. 제3권은 『범지학』이고, 제4권은 『범교육학』으로서 『범지학』의 지식이 전파되도록 하는 교육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코메니우스의 의도를 따라서 말하자면, 『범지학』이란 세계의 모든 것을 아는 데서 비롯하는 지식을 말한다. 또한 범교육이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배워서 알고 완전하게 되도록 인도하는 교육이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 형상이 되도록 돕는 교육이기도 하다.³⁹⁾ 이 두 책의 의미를 살피노라면 마치 『범지학』에서 『범교육학』이 연역된 듯한 인상을 준다. 말하자면 코메니우스는 범지혜 철학자이고, 이 철학자가 범지혜의 확산을 위해 교육의 필요를 느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메니우스의 라틴어 저작들을 독일어로 옮겨낸 대표적 학자인 호프만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한다. 코메니우스는 원래 모든 아이들이 모든 것을 깨닫는 교육을 받는 것을 원했는데, 그 교육을 이루려 한다면 범지학이 요청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 범지학이 요청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말하자면 『범지학』은 『범교육학』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들의 귀납적 총합으로서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프만은 라틴어로 된 코메니우스의 『범지학』을 독일어로 번역해 출판하면서 거기에 ‘코메니우스의 범지학 프로그램’이라는 자신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철학적 체계로부터 교육학적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은 그의 목표가 아니었다. 오히려 명백히 다음과 같다. 그의 우선적인 교육적 관심 때문에 그는 철학 방법론적 기초를 추구했으며, 그리하여 교육학적 과정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을 정초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다.⁴⁰⁾

호프만이 권위자라 해서 이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코메니우스는 자신의 논의의 전개에서 이른바 범지학자의 정체성보다는 확연히 교육학자로서의 정체성에 더 깊이 들어가 있다. 그것은 앞으로의 내용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⁴¹⁾ 한편 주목해두어야 하는 포괄적 정황도 있다. 코메니우스는 말하자면 『범지학』에서 추구하는 세계이해와 『범교육학』에서 추구하는 인격이해를 결합함으로써 세계관에 대한 인격주의적 입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코메니우스가 독보적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이런 경향성은 누구의 경우보다 구체화되어 있다. 『범지학』과 『범교육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며, 거기서도 『범교육학』이 보다 우선적이었던 사실이 이런 정황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37) 대개 ‘일반적 제언’이라 번역하지만, 코메니우스의 경향성으로 볼 때 전체를 말하는 ‘총체적’이라는 말이 더 들어맞는다고 본다.

38) 이 7권 사이의 논리적 연계성을 자세히 논하는 것은 이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다고 본다. 그 이름을 담은 것만으로도 개략적 연계성이 드러날 것이라 보고 여기 소개한다. 1.Panergesia(범각성론) 2.Panaugia(범빛의 길) 3.Pansophia(범지혜론) 4.Pampaedia(범교육학) 5.Panglottia(범언어론) 6.Panorthosia(범개혁신론) 7.Pannuthesia(범경고론); Jan Amos Comenius, 정일웅, 범교육학 (서울: 그리심, 2005 수정2판), 11-12.

39) 범교육학, 서론.3.

40) Jan Amos Comenius, Allweisheit (Luchterhand, 1992), p.98.

41) 상징적으로 말해서, 코메니우스의 존재론은 철학자의 것이 아니라 교육학자의 것이다.

『범지학』보다는 『범교육학』에 자신의 학문적 중심을 두고 있는 코메니우스가 『범교육학』의 궁극적 목표로 보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 되는 것이다.⁴²⁾ 교육학자다운 관점이다. 그러니까 『범교육학』에서 ‘하나님 형상’은 인격적 세계관의 핵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가지는 인격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창조의 말미에 나타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성경의 말씀대로 세계를 주관한다. 그 주관을 제대로 하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여야 할 것이다. 모더니즘을 비판할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나, 혹은 기독교를 비판할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다스림이 근대를 개발주의로 몰아넣은 원흉인 것처럼 말한다.⁴³⁾ 그러나 거기에는 큰 왜곡이 있다.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해석을 낳을 수는 있지만, 성경조차 근대적 개발주의처럼 말하는 것은 의도적인 일반화의 오류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인격’을 가진 인간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다. 필자의 이런 주장은 극히 모더니즘적인 것이라고 비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은 인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하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⁴⁴⁾ 주체가 아니라 해체가 인간학의 목표라고 말할 것이다. 아울러 이 인격이라는 말은 우리 시대와 걸맞지 않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인에게 이런 해체는 그리 낯설지 않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해체한 것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나라라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오늘 누가 이 하나님나라를 해체하겠다면 좋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는 하나님나라로 받을 경험적 준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나라를 살려낼 수 있다면, 하나님 형상도 인격도 그런 맥락에서 모두 살려낼 수 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은 매우 유연하여 어디까지라도 진전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형상의 존재론적 해석학적 폭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말할 때 반드시 하나님 형상을 함께 이야기하여야 하며, 하나님 형상이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 지향을 나타내고 있음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다스림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해체도 품을 수 있다.

『범교육학』에서 코메니우스의 형상론이 가진 위치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코메니우스가 하나님 형상에 주목하는 것은 『범교육학』 서론적 논의에서부터이다.⁴⁵⁾ 이것은 모든 세계관이 출발하기 전에 그 세계관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 하에서 나온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 인격적인 하나님 형상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세계의 이야기이다. 이것은 마치 창조에 앞서 창조의 성격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마지막 날 인간의 창조는 모든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의 핵심이며, 그 핵심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형상이 인간에게 부여됨으로써이다. 세계는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인격적 계획에서 비롯하였다. 이것은 그대로 코메니우스의 인격주의적 세계관으로 드러난다.

Ⅲ. 코메니우스 교육학의 세계관적 지향

이제 인격주의적 출발을 가진 코메니우스의 세계관을 살펴보기로 하자. 코메니우스가 다

42) 범교육학, 서론.3.

43) 저널 수준의 글이지, 진지한 학문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44) Madan Sarup, An Introductory Guide to Post-structuralism and Postmodernism, 전영백,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조형교육, 1997), 12.

45) 범교육학 서론.3; 1.5; 한편 제2장도 ‘모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말하고 있다(2.4)

루는 세계관의 인상을 간단히 말하자면, 신학과 철학의 줄타기 같은 것이다. 철학이 신학의 시너 노트를 하는 시대가 이제는 끝나가는 마당에 코메니우스는 분명 철학과 신학을 함께 다루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자칫하면 다시 중세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줄타기였다. 코메니우스는 이 줄타기를 발전적으로 잘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철학 위에 군림하여 있는 신학의 인상도 지워내고, 한편 기독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철학적으로 표현해 낼 수도 있었다.

그가 군림하는 신학의 인상을 지워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연구 주제가 교육학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범교육학』 전체에서 끝없이 교육적 돌봄을 추구하였다.⁴⁶⁾ 그 돌봄이란 돌봄의 대상에 대한 따뜻한 눈길에서 출발되는데, 방법적으로는 베이컨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다.⁴⁷⁾ 대상에 대한 돌봄은 대상을 주목하는 시선에서 비롯하며, 그것은 귀납적 태도를 요구한다. 베이컨의 귀납법이 그 시대의 큰 이슈이기는 했지만, 베이컨과는 다른 교육학의 분야에서 코메니우스가 귀납법을 응용해 낸 것은 학문적 개가였다. 귀납법을 잘 이해했다기보다는 코메니우스 그 자신 안에 자리 잡은 귀납적 태도가 코메니우스 학문의 인격적 특성과 근대적 특성을 결합시킬 수 있었다. 귀납법이야말로 근대성의 제1특성이 아닌가? 그는 신학으로 군림하지 않고, 기독교 교육학의 인격적이고 귀납적인 지향을 보여주었다.

그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철학적으로 표현해 냈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있다. 그의 창조론적 세계관 표현은 다분히 계시 의존적이다. 그의 세계도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출발한다.⁴⁸⁾ 그리고는 6일간의 창조 사역을 그림 하나에 다 표현한 후에 그 다음에는 그 큰 그림을 쪼개서 한 부분 한 부분 보여준다.⁴⁹⁾ 그야말로 계시 의존적 제시이다. 이 세계도해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이다. 코메니우스는 60세에 이르러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정도의 아이들을 위한 세계도해 그림책을 낸 것이다. 이 세상의 온갖 신산(辛酸)을 겪은 할아버지 학자가 아이들에게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면서 학문 방법론으로서의 귀납법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⁵⁰⁾ 차근차근 계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세계를 신앙적이면서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오히려 150개 이상의 목각을 스스로 하며 아이들에게 세상을 알려주기 위해 시각적 방법과 개념의 제시를 결합한 것은 귀납적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는 그의 책 세계도해는 그야말로 꼬마 신학자 꼬마 철학자를 기를 만한 책으로 계속 되었다. 매우 신앙적으로 세계를 속속들이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신학적 제시이기도 하지만, 마치 어린아이들의 생활세계 철학 같은 것이었다.

46) 범교육학, 1.1.

47) 귀납법이란 원래 시시콜콜 사물들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실제로 존재하는 진리를 얻어내고자 하는 학문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인간에게로 옮겨진다면 그것은 인간을 돌본다는 관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코메니우스의 대교수학 16장에 나오는 교수방법론은 귀납적 교수법의 제시로서 중요하다.

48) Jan Amos Comenius, *Orbis Sensualium Pictus*, 김은권, 이경영, 세계도회 (서울: 교육과학사, 1998), 14.

49) 세계도회, 15-60.

50) 계시의존이 반드시 귀납법과 어긋날 이유는 없지만, 이 부분은 원래 베이컨이 의도한 것과는 분명 격차가 있는 것 같다.

만약에 코메니우스가 철학자라는 입장을 가지기로 한다면, 그는 존재론에서 매우 뛰어난 철학자이다. 그의 존재론은 크게 세 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그가 창조를 중심으로 모든 존재를 사유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기존의 존재론을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여 잘 해석해 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존재론은 매우 교육학적이란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서로에게 섞여들어 있어서 하나하나를 분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코메니우스가 세계관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절묘한 역할을 해낸 개념은 '세권의 책'이라는 개념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교육학적 존재론의 결정적 지점이다. 그는 세계를 하나님 형상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책으로 보았다.⁵¹⁾ 사람이란 그 자체가 배우는 사람이다. 아울러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인간들은 배우며, 그때의 교과서는 3권의 책이다. 그 3권의 책은 '자연과 인간과 성경'이다. 희랍철학에서 현대까지 세계가 신과 인간과 자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은 늘 상식적인 것이었다. 희랍철학은 자연철학에서 시작하여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에게서 인간 도덕철학을 보여주는 가운데, 다소간 부수적으로 신을 이야기하는 철학이었다. 세계가 무엇인지 묻는 철학에서 희랍철학은 신과 인간과 자연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였다. 근대 계몽주의의 대가 칸트는 온전한 존재론을 추구하는 가운데, 청년기에는 수없이 천문대에 올라가 세계로서의 천체에 관심을 표했고⁵²⁾, 한편 자기 내면의 도덕적 규칙을 탐구하였으며⁵³⁾, 자신의 주제적 철학에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신학에 관한 관심도 적지 않았다.⁵⁴⁾ 그도 신과 인간과 자연을 알고자 하였다.

코메니우스 또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의 3권의 책 개념은 알고 보면 그의 존재론이다. 자연과 인간과 성경. 그런데 3번째 책은 신이 아니라 성경이다. 코메니우스 스스로 이 일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사실 당연한 것을 아무도 이렇게 개념화하지는 못하였다. 어떻게 자연과 인간이 하나님과 동열에 놓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 3자를 통치하시는 이시고, 그런 한편에 하나님과 관련한 모든 신비적 사태들은 성경이란 말로 담았다. 그래서 성경은 단지 하나의 책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신비적 사건의 총체이다. 좀 확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단지 성경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뒤를 이어 일어나는 모든 해석과 성도로서의 삶도 포함한다. 코메니우스는 그렇게 기독교적 세계를 표현해 주었다. 자연과 인간과 그리고 그 자연과 인간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일어나는 사태들의 총합. 코메니우스 존재론의 기독교적 탁월성이 거기에 있다. 철학적으로 보아도 마찬가지다. 신은 이 세상에 분명히 활동하고 있지만, 세계 너머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계 존재의 한 부분으로 규정할 수 없다.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적으로 일구어내는 존재론은 철학의 모든 존재론과 그렇게 달랐다. 코메니우스는 자신의 존재론을 교육학적 개념으로 대치함으로써 그와 같은 존재론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는 코메니우스 교육학의 탁월성이자 기독교적 존재론의 특별함이다.⁵⁵⁾

51) 범교육학, 2.17.

52) Geier, 91-134.

53) *ibid.*, 337-404.

54) *ibid.*, 123ff. 여기서 가이어는 칸트를 두고 '신을 끌어들이는 무신론자'라고 표현하지만, 경솔한 일로 생각된다. 칸트가 죽었을 때 교회가 조종을 울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55) 바로 이런 면에서 확실히 코메니우스에게는 범지학이 아니라 범교육학이 더 중요했던 것이

요컨대 코메니우스의 존재론은 자연 인간 성경이라는 3권의 책으로 요약되었으며, 이는 세계 전체를 드러내는 기독교적 시각에 입각한 세계관이다. 이것이 비록 비기독교인들 내부에까지 파고들 수는 없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군더더기 없는 명료성을 제공한다.

IV. 범교육학의 모든 것에 관련된 코메니우스의 인간학

필자는 인식론이 인간학의 출발이라 본다. 인식은 세계의 이해를 담고 있고,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연관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인식은 세계 안에 있는 자기 존재의 이해이며, 그것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식은 인간됨의 출발이다.

코메니우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3가지 내면의 빛을 주셨다고 하면서 자신의 인식론을 표현한다.⁵⁶⁾ 그 3가지 빛은 감각과 이성과 신앙이다. 코메니우스는 여러 곳에서 3요소 제시를 사용하였는데, 앞에서 말한 3권의 책이 존재론적 제시라면 이것은 인식론의 3요소 제시이다. 그래서 아주 철저한 상응은 아니지만, 저 존재론적 3요소와 인식론적 3요소는 대략 상응한다. 자연에 대하여는 감각이, 인간에 대하여는 이성이, 성경에 대하여는 신앙이 상응하는 것이다. 자연을 신앙적으로 볼 수 있고, 인간을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등, 교차적 인식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보다 근사한 상응을 찾자면 그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런 상응을 느슨한 대응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상징의 작동이라고 본다. 자연의 모든 사태가 온전히 감각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감각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세계의 존재가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비추어낸다. 인간의 이성 능력은 인간 정신의 존재를 또한 상징적으로 비추어낸다. 신앙이라는 인식의 기능은 또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비추어낸다. 수학적 일대일 대응이 아닌 까닭에 오히려 코메니우스의 존재론과 인식론의 결합은 더 포괄적인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시킨다.

이와 같은 세계관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적 교육이 각 인간에게서 맺는 열매가 있다. 그것은 성장된 지성과 덕성과 신앙⁵⁷⁾이다. 이것을 다시 인식과 상응시켜 보자면 감각은 지성에 이성은 덕성에 열매로서의 신앙은 인식 기능으로서의 신앙과 결부된다. 특히 코메니우스는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기부터 힘써야 할 학습 과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각각 과학 및 철학, 정치학, 신학이다.⁵⁸⁾ 이 정도로 학문을 모두 말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존재론과 인식론 삶의 결실에 이어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할 과목이 있음을 알려주는 지침으로서의 언급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말하자면 세계관과 교육활동을 연결하여 보여주는 사례적 진술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형성되자고 한다면 적어도 청소년기에는 과학 및 철학, 정치학, 신학에 대한 포괄적 안목을 가진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교육 현실을 보자면 과학과 정치학 분야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철학이나 신학 분야는

다.

56) 범교육학, 2.17; 3.18; 7.18.

57) 인식론에서 거론된 신앙은 인식 기능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삶의 태도와 결실로서의 신앙이다.

58) 범교육학, 11.(16) (이 장은 표기를 조금 달리하고 있다).

고전적 분야이면서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있다. 과학과 정치학 분야는 현실적 이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만 철학과 신학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학은 여차피 학교 교육이 담당할 수도 없는 분야이다. 사실 답은 매우 간단하다. 교회가 이 철학적 필요와 신학적 필요를 채워야 하는 것이다. 과학과 정치의 분야 또한 기독교적이 되는 것이 세계관 운동의 갈 길이기지만, 그보다 분별적으로 신학과 철학을 담당하는 교회 교육이 요청된다.

신학과 철학이라니! 아이들이 모두 달아나고 말 것이다. 아이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고전적 의미의 신학과 철학을 역지로 우겨넣을 수 없겠지만, 오늘 학교 교육이 역동성을 잃은 것은 오히려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지 않은 데서 비롯하는 것이 아닐까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필자로서는 단출하게 이 네 과목에 대한 청소년들의 입장을 물을 필요도 있다고 본다. 학생들을 향한 시대의 해명과 학생 자신들의 표현이 병행되는 작업들을 우리는 부지런히 하여야 한다. 예배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예배 전쟁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⁵⁹⁾ 그것은 보다 전통적이고 신학적인 예배와 보다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예배 사이의 갈등이다. 그래도 이 논의가 방향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정황이 어떠한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하려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코메니우스가 보는 대로 인간이 원래 감각과 이성과 신앙을 가지고 끝내 지성 덕성 신앙이라는 열매를 얻어야 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 과제라는 데 이의가 없는 것이라면, 여전히 이 문제는 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과학과 철학 그리고 정치학과 신학이라는 이 고전적인 과제가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며 제시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물을 수밖에 없다.

사실 20세기의 교육학 발전은 전적으로 바로 그 방향을 취한 것이었다. 피아제 이래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발달이론에 관심을 기울였다. 발달이론의 주된 분야가 인지발달, 도덕성 발달, 신앙발달이 아닌가? 에릭슨의 감정발달 이론이 연령에 따른 주제적 감정과 사회의 관계를 묻는 것으로서 제기되었는데⁶⁰⁾, 이는 아마도 인격의 3요소 가운데 유독 감정에 관한 부분이 저 발달이론에는 주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코메니우스의 이론에 조금의 교정을 한다면 그것은 역시 감정의 부분을 보다 주제적으로 다루면서 가는 일일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교육은 여전히 지성, 덕성, 신앙에 감정까지 물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감정이 특히 사회성과 연관된다고 본 것이 에릭슨의 입장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면, 오늘 학교나 교회에서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공동체 놀이 등은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판단컨대 오늘 교회에서 행하여야 할 교육은 지성, 덕성, 경건성에 공동체성을 덧붙이는 것으로 일단 큰 가닥을 잡을 수 있고⁶¹⁾, 이것은 코메

59)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책이 있다. Elmer Towns, Putting an End to the Worship War, 이성규, 예배전쟁의 종결 (서울: 도서출판 누가, 2009).

60) Erik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윤진, 김인경, 아동기와 사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8), 475-477. 여기서 에릭슨은 특히 아동기와 관련하여 사회성과 감정의 관계를 말한다. 사람들은 강박적이라 할 만큼 아동기의 일을 잊어버리면서, 부모가 될 준비를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사회는 이 때 유아성의 잔재를 돌보는 입장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는 아이의 불안을 형성시키는 자리에 있는 한편 반대로 그 불안을 만져주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니우스에서 출발해서 20세기의 교육학 발전의 궤적을 결합시킨 것이라 생각한다. 요컨대 기독교적 세계관 교육의 큰 맥락은 지성과 덕성과 신앙 그리고 공동체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것은 결국은 코메니우스와 20세기 교육학 발전의 성과를 결합시키는 작업이다. 발달이론의 각 영역은 학자들의 모색을 따라 제각각 하나의 사회과학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모두 모아보면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한다. 20세기 교육학 발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서 세계관을 그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정당성을 획득한다. 그리고 코메니우스는 이들을 모두 엮을 만한 세계관적 실마리를 일찌감치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코메니우스의 인식론과 교육적 열매에 대한 통찰은 세계관적 지위를 얻을 가치가 있다. 또한 이것은 교육학적인 세계관으로서 원래 코메니우스가 교육학적 관점에서 출발한 그 사실의 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이다.

필자는 여기서 정말 코메니우스의 세계도해로 나가려 한다. 그것은 코메니우스의 교육철학과 20세기 교육학에서 거듭 발견되는 기독교적이고 교육학적인 세계관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거기 더하여 세계 도해에서 이미 언급한 존재론과 인식론 및 세계관이 아주 기본적인 영역인 인지 도덕성 신앙 그리고 감정과 관련하여 어떤 실제적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⁶²⁾

V. 코메니우스 세계관에 따른 한 교육과정으로서의 세계도해

세계도해는 약간은 느슨하지만 결국은 매우 정연한 질서를 따라 150장이 넘는 그림으로 유년기와 아동기 아이들을 향하여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면서 『세계최초의 그림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출판되기도 하였는데⁶³⁾, 이 이름은 많은 질서를 일으켰다. 부모의 은혜를 매우 깊이 다룬 불교의 『부모은중경』, 주희의 성리학 세계를 도해한 주돈이의 『태극도설』, 태극도설에 기초를 두고 성리학 초심자를 위해 도해를 한 『입학도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세종 때에 당시의 예절을 다룬 『삼강행실도』 등이 코메니우스의 세계도해에 앞선다고들 주장하고 있다. 인정할 수 있는 말들이다. 그러나 이 그림책들은 한 가지 주제에 편중하였거나, 혹은 완전히 추상적인 사상체계를 설명하기 위해 도해를 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책들이 거론되는 걸 보면, 세계적으로 찾기로 한다면 그 수가 헬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이면서도 세계 전부를 이야기한 책으로 말하자면 역시 『세계도해』가 독보적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여전히 『세계최초의 그림교과서』라 불릴 만하다. 물론 이 이름도 코메니우스가 원한 것은 아니고 후대 학자들의

61) 공동체성의 교육은 사회성 문제에 대한 상당한 답이 될 것이라 본다. 이른바 공동체 교육은 사회성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알고 타인의 감정도 만져주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히 신학과 철학을 분별적으로 더 관심 두어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정하면 된다고 본다.

62) 이것이 코메니우스 교육학적 세계관의 마무리는 아니다. 코메니우스는 세계도해처럼 그려지는 세계가 말할 수 없이 왜곡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개혁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모든 저서를 내었다. 특히 그의 범개혁론은 그 중 대표적인 저서이다. Jan Amos Comenius, Allverbesserung(Panorthosia), Trans. Franz Hofmann (Frankfurt am Mein: Peter Lang, 1998).

63) Jan Amos Comenius, Orbis Sensualium Pictus, 남혜승, 세계최초의 그림교과서 (서울: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1999).

해석적 명칭이지만 말이다.

필자는 이 책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코메니우스가 『범교육학』에서 진술한 자신의 교육학적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교육학』 3장 모든 것의 내용이다. 코메니우스는 여기서 세계의 모든 것을 인간의 필요를 따라 12항목으로 나누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야말로 코메니우스 교육학의 진정한 의미라고 본다. 그 12항목은 다음과 같이 열거된다. ‘존재, 건강, 의식, 명석, 자유, 일, 소유, 사용, 존경, 말, 공동체, 신앙’이 그것이다. 이 12항목은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 고리처럼 연결되었다는 것은 그 각각의 의미를 가지면서도 전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⁶⁴⁾ 세계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자리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 세계를 만나고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보면 그런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코메니우스의 세계이해이자 그의 인간학이기도 하다. 마치 내가 꽃을 꽃이라 부름으로써 꽃이 존재한다는 것처럼, 인간이 인간의 필요를 가지고 나갈 때⁶⁵⁾ 세계는 비로소 의미 있는 세계가 되는 것이다. 코메니우스는 결코 그것을 놓치지 않았고, 자신의 교육학에서 오히려 주제적 위치에 두었다. 그런데 코메니우스의 『세계도해』는 바로 이런 세계 이해의 틀을 기반으로 한다.⁶⁶⁾ 특히 이 12항목과 관련하여서는 ‘일’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런 중심적 주제들과 함께 인간은 저 12항목의 내용과 결부되어 세계를 만나고 있다고 필자는 해석한다. 이 12항목은 난데없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이와 유사한 시도들과 비교를 하노라면⁶⁷⁾, 이 항목의 분류들이 매우 탁월한 통찰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될 것이다.

세계도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을 교사가 아이에게 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론을 지나⁶⁸⁾, 별다른 과의 분류가 없는 채로 150개의 그림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나름대로 느슨한 체계가 있다. 첫 출발은 일언이폐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는 주재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창조세계 자체를 도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그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조를 따라 세계 해명을 하는 것이 이 책의 첫 부분이다.(그림1-43) 이 첫 부분은 창조의 6일을 따라 진행되지만, 창조의 큰 틀을 설명하는 데는 고중세의 철학적 세계관인 4대(지수화풍)의 관점도 동원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의식주와 일에 관한 부분인데, 한 개념으로 모아보자면 생활 일반에 대한 그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온갖 종류의 직업이 소개되는가 하면 그 시대의 문명도

64) 이 연결에 대하여는 다음을 보라. 안영희, 개혁교회 영성신학으로서 코메니우스 영성사상의 실천적 해석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9), 298-300. 이 12항은 인간의 존재에서 출발하여 그 인식적 국면들을 거친 후 학문과 일 그리고 사회성을 지나 신앙에까지 도달하는 인간사 전체이다. 코메니우스는 이와 같이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대하는 세계 전체를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기독교철학자 도예베르트의 15항 학문분류와 거의 일치하며, 현대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오히려 능가한다.

65) 범교육학, 4.11.

66) 예를 들어 클라우스 그로스만과 헨닝 슈뢰어는 별다른 분류의 기준이 없는 채로 세계도해를 20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어떻게든 간단하게 나타내보려는 노력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이어질 필자의 분류가 진일보한 것이라 생각된다. Klaus Großmann, Henning Schröer, Auf den Spuren des Comenius, 정일웅, 코메니우스의 발자취 (서울: 여수문, 1997), 62.

67) 예를 들어 도예베르트가 학문을 15영역으로 나눈 것은 코메니우스의 12항과 비슷하다.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은 해석학적으로는 오히려 코메니우스에 못미치는 듯하다.

68) 세계도해, 9-10.

소개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기초적 중요성을 가진 의식주가 함께 도해되고 있다.(그림 44-81) 여기서의 말하자면 일이나 소유, 사용 등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 세계의 소통에 관한 부분이다. 나그네에서 시작한 소통의 그림은 수레와 배 측량술 같은 교통의 도구도 말하지만 문서나 인쇄술 같은 문명적 소통의 등장과 발전 같은 것도 보여준다. 이런 소개들 한 가운데 철학이 튀어나온 것은 다소 낯설기도 하지만 (그림101), 코메니우스는 아마도 모든 문명들의 배경에 그 세계의 철학이 있다고 본 것 같다.(그림 82-102). 여기서의 말과 공동체 등에 대한 코메니우스의 시선을 보여준다.

조금 무리가 있을 것도 같지만 필자는 그림103-150이 네 번째 부분을 이룬다고 본다. 그것들은 인격의 열매인 지성 덕성 신앙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다. 그림103-108은 천체에서 코메니우스 자신이 살고 있는 유럽까지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천체로서의 우주와 하나의 땅 덩어리로서의 유럽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지성의 관찰력으로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바 바로 그 자연세계이며, 이에 대해 아는 것은 지성의 과제이다. 두 번째는 말하자면 덕성에 관련된 부분이다. 109-120까지는 인간의 기본적 관계를 지향하면서 그와 관련된 사람의 성품들도 꽤 여러 장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121-143은 인간관계의 확장인 사회를 보여주는데, 단지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범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연극을 통해 일련의 재미를 추구하는 것까지 모두 다 사회의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성의 구체적 총합으로 나타나는 도시에 대해서도 코메니우스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그림109-143은 인격이 맺어야 할 과제인 덕성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은 그림 7장(그림144-150)은 그 시대의 종교들에 대한 그림이다. 네 번째 부분은 이렇게 지.덕.경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든 것 12항 가운데 최종의 신앙의 부분을 보여주기도 한다.

앞서 말한 12항목들은 저 네 부분 각각의 속에서 대략적인 분류의 기본으로 사용된다. 개념의 철저한 나열 방식은 아니고 역시 느슨하게 그 내용은 전개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코메니우스가 보여줄 수 있는 그의 교육학적 세계관의 구체적인 자리이다. 교육과정이 원래 수학적 체계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딱 떨어지지 않으면서 내용을 이끌고 가는 것이야말로 신학적 인문학적 여백의 발로가 아닌가? 이 12항목에 실제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 세계도해를 배경으로 유아기 혹은 아동기의 커리큘럼을 만들 계획을 한다면, 그 때에는 이 항목들로 보다 자세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코메니우스의 추종이 아니라 아마도 해석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관 틀을 고려하는 이 글에서 거기까지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제를 벗어나는 일로 보인다.

결어

코메니우스는 원천적으로 세계관적 기획을 염두에 두고 학문을 한 사람이다. 범지학, 범교육학, 범개혁론, 세계도해, 이런 책의 이름들은 세계관 지향적 개념들을 그대로 담은 말들이다. 범지학은 누구보다도 코메니우스의 연구 활동을 일컫기 위해 사용하는 말인데, 범지학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앎으로서 비로소 앎이 성립한다는 입장에서 서 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범지학은 세계관을 표방한다는 말이다. 또한 코메니우스는 범지학이 소위

신지학(Theosophy) 같은 신비주의나 비전주의로 빠져버리지 않고 인류에 유익을 주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학문이 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 교육학에 힘을 기울였다. 그것이 바로 범교육학이다. 따라서 범교육학은 세계관 지향적 교육학이라 할 수 있다. 범지학 자체가 세계관일 뿐 아니라, 그의 이런 교육학적 태도가 또한 건전한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코메니우스의 교육학적 세계관은 그런 기반 위에 서 있다.

우리는 세권의 책이라는 개념에서 그의 존재론을 발견하며, 내면의 빛이라는 개념에서 그의 인식론을 발견한다. 이 두 가지가 탄탄하면 이미 세계관의 조건은 갖춘 것이다. 또한 우리는 코메니우스가 말하는 인격의 3가지 열매에서 그의 세계관이 현대 교육학의 노력을 통합하는 관점을 가졌음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가 세계관을 가졌을 뿐 아니라, 현대에도 그 세계관이 맞아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이 교육학의 영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세계관은 가르치기 용이한 세계관으로 훌륭히 성립한다.

그의 세계관이 근대성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가 모종의 귀납법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 신학적인 주장을 계시의존적 태도로 드러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관으로 세계를 어떻게 속속들이 보여줄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책이 바로 그의 세계도해이다. 그는 세계의 여러 요소들을 그렇게 열거하면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고 말한다. 원래 이것은 하나님나라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필자는 이 사실을 두고 이른바 ‘세계도해 위원회’의 결성을 주장해 왔다. 세계도해는 오늘도 사용가능한 세계관이고 그것은 커리큘럼을 생산할 만한 구체적 세계관의 틀이다. 진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원한다면, 우리는 ‘세계도해 위원회’로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세계도해가 그런 세계관을 어린아이에게까지 가르치는 세계관적 그림책이라면, 범개혁론은 세계관적 관점에서 개혁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기술한 책이다. 그는 말하자면 존재론과 인식론의 결합으로서의 세계관을 보여줄 뿐 아니라 개혁까지도 세계관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회적 요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모양을 바꾸어 가야할 처지에 이른 오늘 한국 기독교가 아닌가! 그러나 범개혁론은 원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변하고자 했던 사람들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 논문을 넘어서 가야할 자리는 그렇게 분명하고 코메니우스는 그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연속적인 연구에 대한 열망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자체를 코메니우스의 세계관 연구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는 분명 교육학을 하였고, 그 교육학이 세계관적 기반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은 “코메니우스 교육학의 세계관적 기반에 대한 연구”이다.

참고문헌

- 문성훈, 미셸 푸코의 비판적 존재론 (서울: 도서출판 길, 2010).
- 안영혁, 개혁교회 영성신학으로서 코메니우스 영성사상의 실천적 해석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9).
- 진교훈외, 인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최명관, 데카르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형설출판사, 1980).
- 최진경, 기독교교육학의 아버지 코메니우스 (용인: 킹덤북스, 2012).
- 한국현상학회편,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서광사, 1992).
-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 (서울: 기독교서회, 1970).
- Comenius, Jan Amos,
Allverbesserung(Panorthosia), Trans. Franz Hofmann (Frankfurt am Mein: Peter Lang, 1998)
Allweisheit (Luchterhand, 1992).
Didactica Magna, trans. Andreas Flitner, 정일웅, 대교수학 (서울: 창지사, 2002).
Orbis Sensualium Pictus, 김은권, 이경영, 세계도회 (서울: 교육과학사, 1998).
Pampaedia, trans. Kraus Shaller, 정일웅, 범교육학 (서울: 그리심, 2005 수정2판).
Dieterich, Veit-Jakobus, Johann Amos Comenius, 최진경,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 (서울: 지만지, 2008)
Erikson, Erik H., Childhood and Society, 윤진, 김인경, 아동기와 사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8)
Foucault, Michel 외, 정일준 번역, 자유를 향한 참을 수 없는 열망 (서울: 새물결, 1999).
Geier, Manfred, Kants Welt, 김광명, 칸트평전 (서울: 미다스북스, 2004).
Großmann, Klaus; Schröer, Henning, Auf den Spuren des Comenius, 정일웅, 코메니우스의 발자취 (서울: 여수론, 1997).
Herbart, Johann Friedrich, Allgemeine Pädagogik, 김영래, 일반교육학, (서울: 학지사, 2006).
Lamprecht, Sterling P., Our Philosophical Traditions, 김태길, 윤명로, 최명관, 서양철학사 (서울: 을유문화사, 1963).
Sarup, Madan, An Introductory Guide to Post-structuralism and Postmodernism, 전영백,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조형교육, 1997).
Towns, Elmer, Putting an End to the Worship War, 이성규, 예배전쟁의 종결 (서울: 도서출판 누가, 2009)
VanGemenen, Willem A., The Progress of Redemption, 안병호, 김의원, 구원계시의 발전사 (서울: 성경읽기사, 1993).
van der Linde, Jan Marius, Die Welt hat Zukunft, 정일웅, 미래를 가진 하나님의 세계, (서울: 여수론, 1999).
- 강영안, 인격적 지식과 보살핌,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 2006.6.
- 이숙중, 평화를 위한 코메니우스의 사상과 교육사상과의 관계성, 기독교교육정보6 (서울: 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03.4).
- 최진경, 코메니우스 연구동향과 그의 사상의 한국에서의 적용, 신학지남 72(3), (서울: 신학지남사, 2005.9).

<Abstract>

A study to the Comenius worldview used as basic of his paedagogik

Ahn Yonghyock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Practical Theology)

Reformed world view formular is already evident. It is creation-fall-redemption -Completion. Many world view researches are the endeavours which reinforce this traditional one. Comenius as a pedagogist use his own world view. His pedagogy is pampaedia and his study to world view is pansophy. He is not a philosopher but a pedagogist. And I did study nat a world view but a his basic of world view. Each of them are little different to another, but this view of point should be kept.

Comenius ontology is a very pedagogical one. He did not call the world existences, but called just books. According to Comenius, God wants that men aught to live well as wise men. Thus they are to obtain wisdom, and they should use three books. they are the book of nature, the book of mind and the Bible. This thought is similar to the Greek philosophy which reckons that the three sort of beings in the world are nature, human beings and gods. But Comenius stand God in the same line together with man and nature. He is the Lord, and there is Bible which reveals him. Thus, the Bible represent all the presence of religious events that happen between God and men.

Comenius epistemology relies on his Ontology naively. Comenius sees men have three recognition functions - sense, reason, and faith. He seems to think the three function are to rely on the three books. But it is not that sense relies on the nature, reason on the mind, and faith on the Bible. He thinks that it's possible to come to birth of cross recognition. So the co-relation between the ontology and the epistemology is symbolic. In other words, it's a God's providence that men as the microcosm meet the macrocosm.

It's meaningful to call human being the God's image on the condition that microcosm meets macrocosm. So because God's image is in the relation with cosmos, Comenius pedagogy and philosophy should be worldview-oriented. Meanwhile, the God's image is the image of God in man. The best concept that can hold its likeness is the human personality. Therefore, the Christian worldview should be explored personally.

Meanwhile, we must learn the the Comenius' writings and spirit which hold the feature of pedagogical worldview. That's 『Orbis sensualium pictus』. It is 150 or more the picture, which is putting creation-oriented worldview. I believe that this book aught finally to be the basic for children's curriculum. I tried to analyze the book for it. And then I used the concept from Pampaedia for that analyzing. Comenius shows the excellent world classification in the 3rd chapter of Pampaedia. The title is all things. It's the method to analyze the world according to the needs of men. In other words, he analyzes the world anthropologically.

The connection of Orbis Pictus and Pampaedia show the fact that the conceptual worldview of Pampaedia is connected with the sensual education of Orbis pictus. So Comenius pedagogik worldview become widely through. Comenius also shows how to reform the world. Panorthosia is the guide how to reform the world on the understanding of present reality. Comenius has the reformation guide which Kids and adults can understand. This is the Comenius' pedagogical worldview formular.

key words : personality, ontology, epistemology, worldview, Pampaedia, Orbis sensualium pictus.